

리아호나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 28쪽**

슬픔에 잠기는 대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14쪽
태평양의 개척자들, 22쪽
가방 속의 방울뱀, 48쪽



“모든 사람은 각기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해
주며 길잡이가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빛으로
무엇을 하며, 또 의롭게
살기 위해 그 속삭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지상 생활
중 겪는 시험의 한
부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쪽.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하나님의 수확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메시아

표지
앞쪽 사진: 레슬리 닐슨
안쪽 사진: 제이슨 린지

특집 기사

- 18 강하고 담대하라
최윤환 장르
사령관이 원하는 술을 내가
거절하면, 동료 경호병들이 별을
받게 될까?
- 22 각국의 개척자들:
통가—하나님께 헌납된 땅
하발린 케이 세코나
통가의 국왕 조지 투포우 1세는
175년 전에 통가를 하나님께 바쳤다.
통가 성도들의 헌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 28 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르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업,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서
하시는 대업입니다.
- 34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
아브라함의 성약이 우리 시대와
복천년 동안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 봅시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4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1 구약의 선지자들: 옴
- 12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미래에 함께하리라는 약속
제롤린 벨러드 스타우트
- 14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에르난도 바스토
- 16 교회 소식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두려움 대신 신앙으로
캐서린 벨슨



42

42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데니스 시 건트

자신의 삶에 닥치는 상황들에 늘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46 부정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안젤리카 해그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주신

“아니다”라는 응답은 사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양이 되지 마세요!



60

48 우리가 배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진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여러분의 배낭에 방울뱀을 담아 두지 마십시오. 온전한 회개는 가능합니다.

52 우리들 공간

53 포스터: 선교사 동반자

54 바나나 빵 선교사들
민디 레이 프리드먼
바나나 빵도 맛있지만, 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맛있는 것이 있다.

56 선교 임지에서:
공항에서 경험한 기적
토머스 이 로빈슨 3세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는데, 표를 살 수가 없었다.

58 질의응답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세요. 엄마와 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6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중력을 이기고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보니 엘 오스카슨
끊임없이 교회의 표준을 따르다면, 대적의 영향력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62 결혼이 멋진 이유
벤 닐슨과 레이첼 닐슨
우리는 우리가 결혼한 것이 정말 좋다. 그 이유는 이렇다.



72

65 특별한 증인: 교회가 참되다는 걸 믿기만 하면 지금은 그걸로 충분한가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66 빛나는 아이디어

67 성신을 느꼈어요!
이첸
우리 형이 다쳤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8 아이사의 축복
맥킨지 반 앵겔렌호벤
아이사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사는 상황이 좀 달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 양 같은 사자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램버트는 자신을 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71 우리들 이야기

72 전 세계 친구들:
저는 통가에 사는 칼로니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7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 가족이 강화된다
제니퍼 매디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엘리의 친구들
제인 니커슨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편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ugust 2014 Vol. 38 No. 8.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바나나 빵 선교사들”, 54쪽: 가족과 함께 바나나 빵(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다른 간식)을 만들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바나나 빵 선교사들이 나누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활동에 초대하거나 전도용 카드를 주어도 좋다.

“건전한 활동은 우리 가족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74쪽: 이번 달에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자녀가 가장 관심 있는 활동, 공과, 주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며 순서를 맡는다. 활동과 공과를 선택할 때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려하도록 각 자녀에게 권한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12, 14, 38, 53, 58, 62, 68, 74
- 개종, 14, 22, 28, 40
- 개척자, 22
- 건전한 여가 활동, 74
- 결혼, 12, 46, 62
- 기도, 46, 67
- 선교 사업, 22, 28, 41, 53, 54, 56
- 선택의지, 42
- 성신, 56, 60, 67
- 성약, 34
- 소망, 12, 14
- 속죄, 48
- 순종, 18
- 시련들, 11, 12, 14
- 신권, 34, 39, 68
- 신성한 본질, 70
- 신앙, 12, 14, 18, 60, 65, 80

- 예수 그리스도, 7, 48
- 외설물, 48
- 인내, 4, 11
- 일, 4
- 지혜의 말씀, 18
- 축복사의 축복, 12
- 친구, 52, 76
- 회개, 48



“분명히 제 호박밭에 그 씨앗을 심었죠. 작년에 늙은 호박을 수확했던 바로 그 땅에 말이예요. 매일 호박넙쿨을 보면서 정말 예쁜 늙은 호박이 열릴 거라고 사람들에게 장담을 했는데, 크고 둥근 주황색 호박이 아니라 길쭉한 초록색 호박이 열리더라고요. 참 많이도 열리더군요!”

이 일로 크리스티나는 안내문에 아직도 부족한 내용이 있으며, “수확은 여러분이 심는 씨앗의 종류와 파종 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라는, 수확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확의 법칙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수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9).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변치 않는 법칙에다 또 다른 지혜와 통찰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수확 법칙이 인간 관계, 개심, 간증, 또는 직업 및 교육 목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토론한다. 이 법칙과 관련된 성구, 즉 잠언 11장 1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열매서 32장과 같은 성구를 읽고 깊이 생각해 본다. 과거의 목표를 되돌아보고, 의로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한다. 그들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일관되게 실천할 계획을 세우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고리와 성약 130:20~21)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수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풍성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누가복음 6:38).

땅에 심는 씨앗에도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듯 하늘의 여러 축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종교를 선반 위에 놓아 둔 채 영적인 축복을 거두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의 생활 속에 복음 표준을 심고 가꾼다면,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 그들과 미래의 세대에게 큰 가치가 있는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늘 즉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응답이 없는 듯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천국의 선함과 너그러움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 우리 구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선하고 정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수확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확 법칙입니다. ■

수확을 계획하세요

하님의 수확 법칙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싶으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래 텃밭 그림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바랄 수 있는 좋은 “열매”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받기 위해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림 오른쪽에 적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신앙, 가족, 구제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여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증거를 목격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아침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다. 주님의 몸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런 후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졌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요한복음 20:1~17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메시아

다음은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로 말미암[아]”(니파이후서 2:8)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아람어 및 히브리어 단어[이다.]

…… 신약전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메시아와 같은 의미이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 구원자를 의미한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않았[음을] …… 알고 있습니다.”²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실 것이며,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³

보충 성구

요한복음 1:38~41; 4:25~26, 40;
니파이후서 6:13; 25:16~17

주

1. 경전 안내서, “메시아”, scriptures.lds.org.
2. 제프리 알 홀런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42쪽.
3.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제자의 길”,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8쪽.

생각해 볼 점

구주가 메시아이심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2014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4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으로 함

“종교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 하나님께 ‘다시 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나타내 보일 만큼 하나님께 안전하게 매여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나는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는가?’ …… 많은 사람이 다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둡니다.] ……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논쟁의 소지가 많은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

인기를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여론을 더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 ‘누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악행이 선행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전하게 매여 있어서 그분의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9쪽, 30쪽, 31쪽.

lds.org/go/priorities814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아이디어를 얻으십시오.

선지자의 약속



소망

“가족에게 소망이라는 유산을 남기려 할 때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을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어릴 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성찬식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는 일들은 자녀가 어릴 때 하기가 더 수월하고, 효과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 후손에게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소망이 옳았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참으로 값진, 소망의 유산”,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5쪽.

lds.org/go/legacy814에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유산을 남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가서 행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시간을 내어 이번 대회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들은 …… 다음달

엔사인이나 리아호나 잡지로도 발행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읽어 보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5쪽.



빈칸 채우기

1. “기도와 _____을 통해 가족이 보호받고 …… 힘을 얻게 [됩니다.]” lds.org/go/reeves814 또는 린다 에스 리브즈, “외설물로부터의 보호—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가정”, 17쪽을 참조하십시오.
2. “지식은 …… 개인적인 _____와 _____을 통해서만 옵니다.” lds.org/go/packer814 또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증인”, 94쪽을 참조하십시오.
3.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_____해 주며’ 우리를 보살피 줍니다.” lds.org/go/stevens814 또는 진 에이 스티븐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83쪽을 참조하십시오.
4. “순종은 …… _____과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권능 사이의 선택입니다.” lds.org/go/perry814 또는 엘 톰 페리 장로, “충실함을 통한 순종”, 103쪽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순종’ ‘지혜’ ‘충실함’ ‘사랑’

유사점 알아보기



사랑

연 차 대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몇몇 주제에 관해 두 명 이상의 연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랑에 관한 세 연사의 말씀입니다.

- 청소년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참된 의로움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제자 됨의 대가와 축복”, 8쪽.
- 여성에게: “나이, 문화, 상황의 차이를 넘어 서로 보살피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애: 우리에게 서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121쪽.
- 남성에게: “……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기꺼이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61쪽.

lds.org/go/love814에서 몬슨 회장과 다른 연사들이 모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관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신권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신권의 열쇠와 권세”라는 말씀에서 “신권 권능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권 열쇠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인도하며, 신권 의식과 신권 권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권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옥스 장로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신권의 권능, 열쇠, 권세와 관련된 주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옥스 장로의 메시지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 신권 열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합니까?
- 신권 열쇠와 신권 권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신권 축복은 성별에 따라 제한됩니까?

나에게 주는 의미:

-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으로부터 임무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어떤

권세를 위임받는가?

- 내가 완수해야 할 현재의 임무나 부름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맡는가?
-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의문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lds.org/go/oaks814에서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답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2014년 연차 대회 5월호나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부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lds.org/go/dtc814 또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11쪽을 참조하십시오.
- 순종과 선택의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lds.org/go/hales814 또는 로버트 디 헤일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35쪽을 참조하십시오.
-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lds.org/go/wixom814 또는 로즈메리 엠 워슨,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보호받고 준비되며 힘을 얻습니다”, 116쪽을 참조하십시오.

욘

“나는 욘이 가졌던 확신과 인내심만큼 교회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² 주님은 저를 축복하셔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셨고, 큰 부를 허락하셔서 저에게는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³있었습니다.

사탄은 제가 현세적인 번영을 잃는다면 의로움을 버리고 주님을 저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저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신체적인 해는 끼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저의 가족들이 강탈되거나 죽게 했고, 강한 바람을 보내어 저의 집을 무너트리고, 집 안에 있던 자녀 열 명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욕하는 대신 “일어나 겐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⁴

제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저를 육체적 고난으로 시험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저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저를 “밭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⁵ 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고결함을 지켰고, 주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와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난이 저의 악함으로 비롯된 것이니 회개하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제가 의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⁶ 주님은 후에 제 친구들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하셨고, 저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⁷

주님은 저의 충실함을 보신 후 저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축복을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⁸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얻게 되었고,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또 얻었습니다.⁹ 주님은 저의 신앙과 인내에 대해 참으로 풍성한 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환난에 처했을 때나 번영할 때나 제 삶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¹⁰ ■

욘은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삶과 간증, 고난 중의 인내는 우리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

- 주
1. 조셉 비 워스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8쪽.
 2. 욘기 1:1 참조.
 3. 욘기 1:2-3 참조.
 4. 욘기 1:7-22 참조.
 5. 욘기 2:7.
 6. 욘기 22-27장 참조.
 7. 욘기 42:7-9 참조.
 8. 욘기 42:10.
 9. 욘기 42:12-13 참조.
 10. 욘기 19:25-26.



우리가 미래에 함께하리라는 약속

제롤린 벨러드 스타우트

남편이 암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혼자서 여덟 자녀를 키운단 말인가?

어느 흐린 일요일 아침, 나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부엌 옆 거실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들 둘이서 경전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가정에 밀어 닥친 이 암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남편은 수년에 걸쳐 암이 싸웠지만, 결국 암은 전이되어 버렸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어찌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경전 비디오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읊는 대사 한 마디가 내 머릿속을 파고 들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39~40)

나는 행주를 떨어뜨리고 텔레비전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구주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였다. 마치 구주께서 실제로 내게 말씀하신 것만 같았다. 파스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온몸에 밀려들었다. 암과 싸워 온 여러 해 동안 정말 많이 배워 왔던,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이

그러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나는 열다섯 살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당시에는 그저 내 성전 결혼을 묘사한 내용으로만 보였던 한 문장이 지금은 큰 약속이 되었다. 축복문에는 내가 의로운 신권 소유자와 성전에서 결혼하게 될 것이며 배우자가 “그대의 젊은 시절뿐 아니라 그대의 말년에도 그대를 돕고, 인도하며 지원해 줄 것이라.”라고 되어 있다.

암과 투쟁하던 여러 해 동안 축복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그 문장에서 큰 희망을 얻었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미래에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남편이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영을 통해 큰 위안을 받았던 것을

떠올랐다. 나는 축복문의 일부를 외웠으며, 암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면 그 약속을 다시 상기했다.

나는 구주께 우리를 맡겨야 함을, 끊임없이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그리고 커져 가는 두려움에 맞서 신앙으로 싸워 나가야 함을 배웠다. 그날 아침에 본 비디오는 내가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신앙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짐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속박에 놓인 엘마의 백성이 등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모사이야서 24:14 참조) 암과 싸우는 우리 가족도 그랬다. 우리 가족은 암이 지우는 짐을 느끼지 않으면서 맞설 수 있었다.

남편은 암 세포를 추적하고, 또 있을지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배움

“삶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예상하지 못했고 절대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은 배우고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1쪽.



모르는 종양을 찾기 위해 아직도 검사를 받고 있다. 지불해야 할 의료비는 아직도 남아 있고 남편은 암 치료 부작용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매일 나는 남편에게서 더는 암이 발견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나는 우리가 노년까지 함께 살게 되기를 간구한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축복문에 언급된 “말년”이 언제까지인지 나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말이 자녀가 다 성장하고 난 후 남편과 내가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를 바란다. 또한

남편이 손자들을 차에 태워 주고 무릎 위에서 뛰놀게 해 줄 수 있다는 뜻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언젠든 주께서 남편을 데려가시더라도, 그때가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말년”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 더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축복사의 축복에서 하신 약속을 존중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분은 수년간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여러분이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축복사의 축복문이 있다면 자주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에르난도 바스토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콜롬비아에 있는 우리 집 현관문 위쪽으로 두 젊은이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들이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뭔가를 뚫고 서 있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그저 엄청나게 키가 컸을 뿐이었다! 당시 세 살배기였던 우리 아들, 파블로 에제키엘도 깜짝 놀라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며칠이 채 못 되어 그들은 아들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아내 루디아와 에리카, 예시카, 그리고 어린 에제키엘과 나까지, 우리 가족은 주님을 찾고 있던 터였다. 우리는 몇 가지 복음의 원리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 기도했고, 가족 기도를 했으며, 가족 활동도 했다. 우리의 삶은 가족의 화합을 기반으로 했다. 에제키엘이 “거인 천사”라고 이름 붙인 두 장로를 만난 후, 가족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습관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파 장로와 필즈 장로는 경전을 길잡이로 삼아 우리에게 길을 알려 주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 주님께 간구하던 중이었다. 물론경과 회복된 복음은 여러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토론하면서 생각해 왔던 각종 의문들을 풀어 주었다. 정말 꼭 맞는 답을 얻었기에, 우리는 곧 교회 회원이 되었다. 1년 후, 우리는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우리의 삶과 집 안에는 영이 함께했고, 당시 4살이던 에제키엘은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아멘 하고 말한 뒤 웃음을 지으며 서로 껴안았다. 이 어린 아들은 우리의 기쁨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는 것을 습관화하여 1년에 두세 차례 성전에 참석했다. 우리의 집은 성전에서 42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일은 늘 즐겁기만 했다. 우리 아이들은 가족 역사 사업을 우선시했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는 것을 참 좋아했다. 우리는 늘 경건하게 준비했고, 주님의 집에서 해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에제키엘도 영성과 신앙 면에서 성장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최고의 보물로 여겼고 늘 엄마에게 특별한 칭찬을 했다. 언젠가는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를 공룡 뼈보다 더 사랑해요!” 하고 말한 적이 있다. 공룡 뼈 찾는 놀이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 에제키엘은 14년간,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했다. 아이는 언제나 곧바로 순종했으며, 가정에 사랑을 퍼뜨렸다. 그 아이는 누나들과 경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자기가 따를 본보기로 여겼다. 생기와 활력이 넘쳤고, 세미나리 수업에 빠진 적도 없었으며,



통해서 교회를 알아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를 늘 바랐었는데, 지금 그 아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구원의 계획 덕분에 우리는 에제키엘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다. 우리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찾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낀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악한 사람들의 질시와 현세의 악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으며, 우리도 곧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76쪽)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에제키엘을 다시 보리라는 소망으로, 영혼에 용기를 얻고 암울한 날을 견뎌 낼 힘을 얻는다. ■

글쓴이는 콜롬비아에 산다.

구주의 속죄와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감 어린 비디오를 시청하려면 <https://www.lds.org/youth/video/because-of-him?lang=kor>에 접속한다.

집안을 행복으로 채웠다. 성찬을 전달할 때에는 경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에제키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이가 그리웠다.

희귀한 질병이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그러나 이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아이와 다시 함께하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다. 성전에서 인봉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다. 아이가 떠난 후에 생긴 공허함을 주님께서 그 아이를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지식이 채워 주었다. 에제키엘의 장례식은 참으로 특별했고, 많은 사람이 그 장례식을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볼 수 있다.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14년 8월 1일자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또는 제이 정원회 소속이다.

칠십인은 계시에 따라 부름받으며,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전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보조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칠십인의 역사는 실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라고 말했다. 칠십인에 관한 첫 번째 참조 성구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후에 모세를 보조하기 위해 칠십인을 모았던 민수기 11장 16~17, 25절에서도 언급되었다.

필멸의 성역을 베푸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칠십인을 불러 열두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마태복음 10:1, 16~17; 누가복음 10장 참조)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을] ……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칠십인이 포함됩니다.”라고 패커 회장은 말했다.(신앙개조 제6조 참조) 오늘날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칠십인은 십이사도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패커 회장은 “칠십인은 위임을 통해 십이사도가 지시한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²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와 칠십인, 제1부: 계시 및 칠십인의 역할”(비디오)에서, LDS.org.
2.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와 칠십인”에서.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전 지역 보조



엘 휘트니
클레이튼
유타 북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남



도널드 엘
홀스트롬
북미 북동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북미 북서
북미 서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아이다호
북미 중앙



울리세스
소아레스
북미 남동



린 지 로빈스
북미 남서

아프리카 동남



스탠리 지
엘리스
제1보좌



칼 비 쿡
회장



케빈 에스
해밀턴
제2보좌

아프리카 서



터렌스 엠 빈슨
제1보좌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회장



에드워드
듀브
제2보좌

아시아



랜디 디 펑크
제1보좌



게럿 더블유
공
회장



치 홍 (샘) 왕
제2보좌

북 아시아



고이치
아오야기
제1보좌



마이클 티
링우드
회장



스코트 디
와이팅
제2보좌

브라질



자이로
마자가르디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제2보좌

카리브 해 제도



클라우디오 디
지빅
제1보좌



제이 데븐
코니쉬
회장



우고 이
마르티네스
제2보좌

중미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1보좌



케빈 알 던컨
회장



호세 엘
알론소
제2보좌

유럽



패트릭
키아론
제1보좌



후세 에이
테제이라
회장



티모시 제이
다익스
제2보좌

유럽 동



랜들 케이
베네트
제1보좌



브루스 디
포터
회장



외르크
클레빈가트
제2보좌

멕시코



폴 비 파이퍼
제1보좌



벤자민 데
호요스
회장



아날포
발렌주엘라
제2보좌

중동/아프리카 북



브루스 에이
칼슨



래리 에스
캐처

교회 본부에서 관리함

태평양



오 빈센트
할레크
제1보좌



케빈 더블유
피어슨
회장



에스 기포드
닐슨
제2보좌

필리핀



세인 엠 보웬
제1보좌



이안 에스
아던
회장



래리 제이
에코 호크
제2보좌

남미 서북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제1보좌



후안 에이
우세다
회장



시 스코트
그로우
제2보좌

남미 남



조지 에프
제블로즈
제1보좌



월터 에프
곤잘레스
회장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제2보좌



최윤환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강하고 담대하라

“경호실장님이 우리가 일을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거하게 회식을 하자고 하셨어!” 경호병사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분명 즐거워해야 할 일이었겠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식이 술자리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거부할 만큼 영적으로 강했지만, 동료들이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므로,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경호병사로 배치되었습니다. 동료 경호병사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므로 알코올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식 계획이 발표되자 그들은 회식 자리에서 사령관이 술을 마시라고 명령할 때 제가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 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식에서는 사령관이 각 경호병 앞에 서서 한 명씩 술을 따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경호병은 잔을 치켜 들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고 외친 후, 단숨에 그 잔을 비워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어떤 명령이든 거부하는 것은 불복종이며, 당사자뿐 아니라 부대원 전체에게 큰 곤란을 안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불복종으로 영창에 갈 수도 있기에 동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는 시작되었고, 열 명의 우리 경호병사들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각 사람 앞에는 빈 잔이 놓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들어와 첫 번째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 경호병은 잔을 들고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고 외친 후, 술을 들이켰습니다.

사령관은 두 번째 경호병에게로 가셔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동료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사령관이 제 잔을 채우자 저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심화: 마이클 에스 파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나서,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령관의 비서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전화받으십시오.” 사령관은 그를 돌아보며 “지금은 바빠.”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잔을 든 채로 서 있었고, 그 비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령관님, 대통령 각하십니다.” 이에 사령관은 “아, 그런가.” 하고 대답하며 즉시 방을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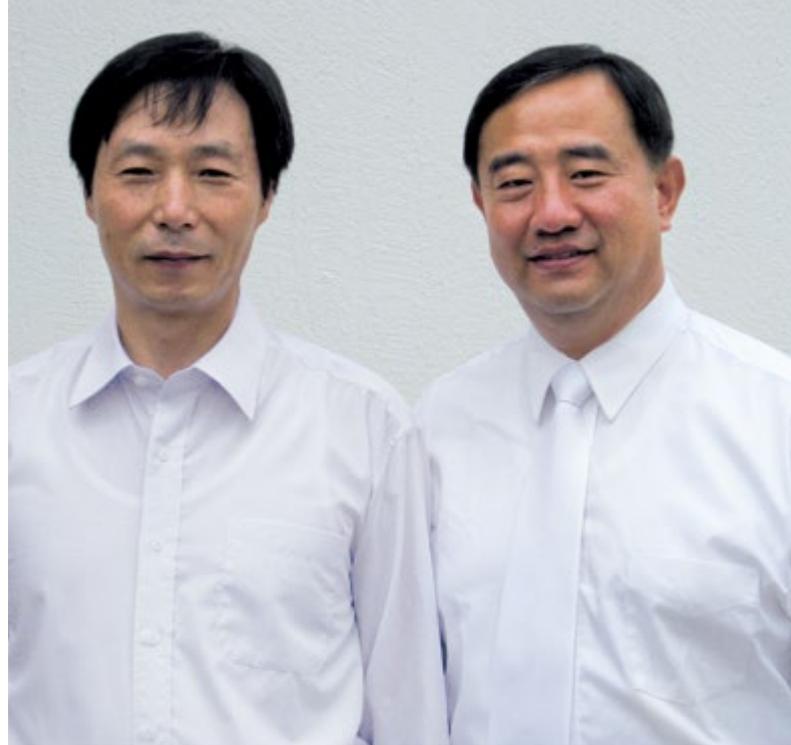
그때, 갑자기 두 번째로 앉아 있던 경호병이 자기의 빈 잔을 제 잔과 바꾸고는 거기 담긴 술을 들이켰습니다. 곧이어 돌아온 사령관은 제 잔을 보며 “아, 벌써 마셨구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차례가 네 번째 경호병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35년이 지난 오랜 뒤에 저는 한국의 어느 지부 회장님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군복무를 함께했던 박 아무개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 사람과 함께 복무했는데, 그는 제 믿음을 존중해 주었으며, 난처한 상황에서 저를 종종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지부 회장님께서 그의 전화번호를 받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대통령 경위병사로서 함께 지내는 동안 저에게서 어떤 빛을 보았고, 저를 도와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생각이 났다면 두 아들이 저처럼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후기 성도 예배당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는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한 아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아들은 저활동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도움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곧 그의 아들과 만났고, 교회에 돌아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겸손히 제 조언을 받아들여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으며, 전임 선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집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아버지가 침례를 준비하도록



함께 군 복무를 할 때 그는 제가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35년 후에 저는 그가 교회 회원이 되도록 침례를 주었습니다.

도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이듬해 여름, 저는 그가 교회 회원이 되도록 침례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35년 전에 어느 젊은이가 신앙을 실천한 덕분에 변화되었습니다.

올무와 밧을 피하십시오

구약전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마주치게 될 올무와 밧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밧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라”(여호수아 23:13).

제 경우에, 동료 경호병들을 곤경에 빠뜨릴 거라는 저의 예상이 바로 술을 마시도록 유혹하는 밧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옳은 일을 선택했고, 결과와 관계없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여호수아 1:6) 주님은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예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널 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쳐나는 물에 먼저 밧을 디디며 신앙과 용기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물이 끊어지고” 강이 “한 곳에 쌓여 서[도록]” 해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비웃음을 경험하고, 반대와 마주칩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 미소 지어 주십니다. 기꺼이 남자답게 죽겠다는 결심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수반될 때 용기는 생명력 있고 매력적인 덕성이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8~69쪽.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13~17 참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여호수아 1:6; 23:8)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이 모여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가정의 밤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을 들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자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계명에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함으로써 그분을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며, 올무와 덫을 인식하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보호자들은 안전을 지켜주는 지침과 규칙을 세워 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규칙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

순종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선지자들은 항상 순종으로 힘과 지식을 받았습시다. 우리 역시 그러한 힘과 지식의 근원을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¹

신앙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직후, 조언을 구하고자 해롤드 버리(1899~1973) 장로님을 찾아가셨습니다. 팩커 회장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문제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을 찾아가 뵈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권고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었으나 그분이 권고하신 대로 제가 행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리 장로님에게로 돌아가 어떻게 권고를 실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문제는 장로님이 시작을 하기도 전에 결과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처음에 해야

할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평생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빛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후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을 움직이면 빛이 나타나 장로님 앞에 놓인 길을 보여 줄 것입니다.’²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야 하거나, 신앙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들을 세세히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사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거나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마른 땅을 걷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경전과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인도를 구하고 따를 때, 우리는 강하게 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적의 영토”³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적은 우리의 주님,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 보내지신 우리의 구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굳게 [섬]”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할 때,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 90쪽.
2. Boyd K. Packer, “The Edge of the Light,” *BYU Today*, Mar. 1991, 22-23; 또한 *구약전서: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1996), 84쪽 참조.
3. 보이드 케이 팩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6쪽.
4. 로버트 디 헤일즈,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1쪽.



통가

하나님께 헌납된 땅

하발린 케이 세코나
통가 리아호나 중학교 교장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미국 뉴욕 주에서 조직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드넓은 태평양의 한 섬나라 왕국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1839년 통가의 국왕 조지 투포우 1세는 그의 나라와 백성과 후손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기로 결의했다. “나의 유산은 하나님과 통가이다”라는 왕의 선언이 통가의 모토가 되었다. 이러한 유산이 있기에 통가에서 종교는 지대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까지 모든 통가인은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서 지킨다.

최초의 선교사들

사모아 선교부의 선교사였던 브리검 스무트 장로와 알바 버틀러 장로는 통가 제도에 회복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1891년, 통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지 투포우 1세를 알현했으며, 왕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고무된 기대감으로, 더 많은 선교사가 통가 제도로 부름을 받아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에 나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가에서 교회의 성장은 하와이, 뉴질랜드, 사모아와 같은 다른 폴리네시아 섬들에서만큼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1897년, 선교사들은 사모아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통가에 있는 소수의 개종자들은 한동안 교회 지도자들 없이 지내게 되었다.

사진: 소아나 티우파, 그 외 작가는 따로 표시: 왼쪽 위 아래 사진: PROSACZEO/STOCK/THINKSTOCK



1891년, 브리검 스무트 장로와 알바 버틀러 장로가 국왕 조지 투포우 1세를 알현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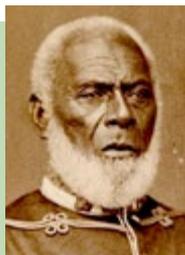
기독교 문명 확립

통가 제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자 교회 학교가 다양하게 설립되었다. 1947년, 교회는 넓은 땅을 빌려서 지금은 리아호나 고등학교로 알려진 새로운 학교, 즉 리아호나 대학을 짓기 시작했다.

1953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1886~1983) 장로가 헌납한 이 학교는 입학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등댓불”이 되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헌납식에 참석한 살로테 투포우 3세 여왕은

연대표

▶ 1839년: 조지 투포우 1세가 기독교에 문호를 개방함.



1891년: 최초의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통가에 파견됨.

1892년: 최초의 개종자인 알리파테가 침례와 확인을 받음.

1897년: 선교부가 폐쇄되고 선교사들이 사모아로 돌아옴.



◀ 1907년: 선교 사업이 재개되고 교회가 네이아푸에 학교를 개설함.

기억된 백성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 알지 못하느냐?”(니파이후서 29:7)

주님은 섬 왕국 통가의 성도들을 잊지 않으셨다. 1907년, 허버 제이 맥케이 장로와 더블유 오 페이스 장로가 바바우 네이아푸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지부와 작은 학교를 이끌기 시작했다. 머지 않아 선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통가 제도 곳곳에 여러 개의 지부와 교회 학교가 설립되었다.

세계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통가에서 어느 정도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복음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선교 사업이 꽃을 피우자 통가의 현지 회원들도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기간처럼 외국인들이 통가를 떠나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었다.

이 학교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기독교 문명”을 건설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치하했다. 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수천 명에 달하는 리아호나 고등학교 졸업생이 선교사, 교회 지도자, 저명한 지역 사회 지도자로서 봉사했다.

오늘날 통가에는 교회가 후원하는 두 개의 고등학교, 즉 주요 섬인 통가타푸 섬의 리아호나 고등학교와 바바우 섬의 사이네하 고등학교가 있다. 아울러 통가타푸, 에우아, 하아파이에 있는 학교들을 포함해서 다섯 개의 중학교도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

성취된 예언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과 부인 에머 레이 자매가 1955년에 통가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은 맥케이 회장 내외를 왕족처럼 대우했다. 교회 회장이 통가 제도를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통가타푸와 바바우를 방문하는 짧은 여정 중에 맥케이 회장 내외는 회원들과 여러 모임에



하와이, 타히티, 뉴질랜드, 피지, 사모아의 전통 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 공연의 줄거리는 어린 자녀를 잃은 부부가 상실감을 달래 줄 보물을 찾아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시작됐다. 두 사람은 가는 섬마다 보물을 찾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두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지는 못했다. 그 부부는 통가로 돌아온 후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소개받고 “영원한 보물”, 즉 영원한 가족과 또 먼저 떠난 자녀와 장차 다시 결합하게 되는 축복에 대해 배우게 된다.

재헌납식이 예정되어 있던 주 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11월 2일, 마지막 총연습을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비를 멀리 잡아 두셨다.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보물이며, 성전은 그런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지어진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다음 날 진행될 성전 재헌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주님께 헌신하는 백성

지금까지도 통가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통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 제도 전역에 수많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선교사들이 늘어나 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굳건히 자리한 교회 학교들은 용감한 선교사와

▶ 1953년: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가 리아호나 고등학교를 헌납함. 리아호나 고등학교가 통가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학교 중 하나가 됨.



▶ 195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통가를 방문함.



1960년: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통가어로 번역됨.

1968년: 통가 최초의 스테이크인 누쿠알로파 스테이크 조직.



하는 날에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면, 날씨를 좋게 해 주셔서 통가를 위해, 또 위성방송으로 지켜볼 모든 사람과 특별히 선지자를 위해, 공연에 지장이 없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몹시 내렸고, 다음 날 아침 날씨도 여전히 껏어 보였다.

토요일 저녁, 힝클리 회장의 건강 문제로 대신 성전 재헌납을 위해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말씀을 듣고자 3천 명의 청소년들이 테파이바 경기장에 모였다. 나는 그날의 공연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되었다. 날씨는 완벽했고, 전에 고장을 일으켰던 음향 시스템도 수리되어 훌륭했으며, 춤을 추는 청남 청년들은 마음을 담은 공연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하나님



1월에 열대성 폭풍이 통가 북부 섬들을 강타한 후, 통가타후에서 하이파이로 보낸 구호물자를 나르는 선교사들.





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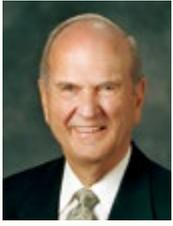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해야 할 선교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진파하라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담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한다.”¹

선교사로서의 회원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이 목적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영감과 인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에는 복음을 나누는 목적을, 또 다른 한편에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돕으로써,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음 토론에 참석하는 것, 가능한 모든 사람과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또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일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간다는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나를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적인 생활은 친구들과 이웃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이 생활하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보이는 희망과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베드로전서 3:15 참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5쪽.

선교사로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춤

선교사로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며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할 때, 그에 이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1. 우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구도자의 생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것입니다.
2. 우리는 대화할 때 누가 영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성신을 구하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3. 가족 안에서나 워드 평의회에서, 그리고 전임 선교사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선교 사업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 우리는 각 구도자가 개종과 침례에 이르기까지 경험해야 할 일들을 파악하고, 기억하여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우리의 연구에 목적이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기회를 기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구도자뿐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영혼의 질문을 풀고자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구도자가 침례에 대한 더 강한 소망을 키우고, 복음 성약 안에서 끝까지 견딜 토대를 확립하는 데에는 교회 참석이 필수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교회 모임에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박한 마음으로 교회 참석을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예배의 중요성과 후기 성도 일요일 예배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영이 함께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설득력을 우리의 말에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내면화하여 이해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장의 내용과 “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복된 복음 원리와 의식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온다는 그 목적을 내면화하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업,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서 하시는 대업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한다는 그 목적을 내면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속죄의 은혜와 구원에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임 선교사들이 모사이야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앨마서 17:3)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고 권유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부탁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제가 볼 때 선교사로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의 장엄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끄는 것만큼 숭고한

노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로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며, 그리스도에게 데려올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건실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초대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말은 일종의 준말로써, 구원의 계획을 한 문장으로 줄여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죄와 부활의 열매,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은 곧 그분의 무한한 속죄 희생에서 비롯된 용서와 성결, 변화와 구속 권능의 은혜를 얻는 데 필요한 일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물론경에는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주님께서 가장 훌륭히 설명하신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리웠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제3니파이 27:13~15)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이란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완전히 순종하는 아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응답합니다.(고린도전서 6:19~20 참조) 이제 그분은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화신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담은 복음 메시지는 예수께서 속죄 희생으로 자비의 화신이 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덕,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설 수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8;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그렇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에 나오는 선교사로서의 목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뎌”²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제3니파이 27장에서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결론 맺으십니다.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빨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제3니파이 27:16, 19~21)

신앙과 결심

우리가 영으로써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싹 틔울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그들은 회개하려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회원들과 전임 선교사들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영으로써 그들이 일으켜야 할 변화에 대해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며 약속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도자에게 권유하는 것은 물의 침례를 결심하고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물의 침례 후에는 죄 사함과 성결함을 가져오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은사를 받음으로써 침례가 완성됩니다.(니파이후서 31:17 참조)

우리가 필요에 따라 회개하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계속 신앙에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정당하고 흠 없이 서는 이상태는 일생에 걸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회개, 물의 침례와 영의 인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리들부터 먼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실린 하이럼 스미스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또다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일 그것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추가적인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또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³

이 말씀에서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는 복음의 핵심인 첫째 되는 원리들은 단 한 번의 검토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감에 따라 거듭해서 계시를 경험하면서 빛과 더 깊은 이해가 추가될 것입니다.

회원들이 간증을 나누고, 전임 선교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해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일을 실행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복음 원리를 연구하고 준비하여 나누면,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회원, 선교사, 구도자 등 함께한 사람 모두가 영의 지시와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선교 사업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교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문경만큼 절박하게 선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로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주요 교리가 어느 구절에서나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와 같이 참된 교리에 대한 간증과 개종의 영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이 책을 읽고 그에 대해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개종하게 될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물문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본성을 밝혀 줍니다. 이 책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일으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옵니다.

구원 사업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개종과 지속적 활동 및 활동화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hasteningthework.lds.org에서 알아보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기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lds.org/topics/missionary-work/change에서 얻을 수 있으며,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관하여 lds.org/church/share에서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원한 빛을 쬐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물몬경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책의 간증은 참됩니다. 이 책의 번역자 조셉 스미스는 위대한 회복의 선지자입니다. 물몬경에서 배우고 그 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사랑하고 그 책에 나온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유를 깨닫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2008년 6월 22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쪽.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쪽.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쪽.

하나가 되어 일하라

기쁜 마음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교회 활동과 봉사,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회원과 선교사들은 이 사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동료 회원 및 선교사들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며 서로 돕습니다. 언제나 전임 선교사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이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도록 선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9~80쪽)

시대 개관 도표

도표 2: 예수 그리스도 시대부터
복천년까지

(도표 1은 2014년 2월호에 실렸음.)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약이라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뜻하며,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성약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열며
그 일부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와 똑같은 성약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 성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복음의 교리와 계명은 각 경륜의
시대마다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성약의
기본 요소입니다.”(“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0쪽)

이 도표는 예수님의 시대에
이어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이 도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을 포함하여
우리와 맺으신 성약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지를 보여 준다.

51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베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속죄와 성역을
베푸시어 아브라함 및
여러 고대 선지자들과
맺으신 많은 약속을
성취하셨다.
누가복음 1:68-75; 2:4-7

52 예언
후기와 복천년 기간에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집과 맺으신 약속을
모두 성취하실 것이다.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3:4-11(경전
안내서에 있음.)**

53 예언
유대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이후에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자상에
오실 것이다.
누가복음 9:22, 26-27

경륜의 시대:

동반구

절정의 시기

서반구

*주후 1년

30년

51

52

53

51

유대
지파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에는 니파이인과 레이멘인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61 예언
몰몬경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하셨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표적이 될 것이다.
제3니파이 21:1-7;
29:1-4

62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분의 성약을 세우실
것이다.
제3니파이 21:20-25

**63 사도 베드로가 한
시헌에서 이방인들이
복음 의식과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예언 62 참조.
사도행전 10장;
갈라디아서 3:26-29**

강원나무 가지 삽화: LAURENT RENAULT/HEMERA/THINKSTOCK

54 모세와 엘리아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주었다.
마태복음 17:1~8;
경전 안내서, "변형";
scriptures.lds.org

55 예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백성은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질 것이다.
조셉 스미스-마태복음 1:4~20

56 예언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고 배도에 빠질 것이다. 후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7:11; 요한복음 15:18~16:3

57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죄로 고통을 겪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다. 예언 41 및 53 참조.
마가복음 14:32~65; 15:1~38; 16:6~14

58 사도들이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다.
마태복음 28:16~20

59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에게" 나타나셨다.
제3니파이 15:15; 16:1~3

60 예언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에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제3니파이 16:5; 20:10~13; 21:26~29

예수 그리스도-십이사도

예수 그리스도-십이사도

35년

100년

500년

대배도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54



58



57

예언: 지노스의 비유

(주전 400년~주후 100년경)

얼마 후 포도원의 주인과 그의 종들이 포도원으로 돌아와 모든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린 것을 보았다. 가꾼 감람나무의 뿌리 덕분에 들감람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포도원에 퍼진 가꾼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척박한 곳에 심어졌음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 좋은 땅에 심은 하나의 가지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었다.(야곱서 5:15~28 참조)

지노스의 비유(주후 100~1400년경)

주인과 그의 종이 포도원에 거름을 주자 그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나쁜 열매였다. 들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자라 뿌리의 힘을 이기게 되어, 가꾼 감람나무가 온갖 못된 열매를 맺었다. 가꾼 감람나무 가지들의 열매가 모두 못쓰게 되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은 가지마저 죽어 버렸다. 포도원의 주인이 울며 물었다. "나의 포도원을 못 쓰게 한 것이 누구냐?" 종이 말했다. "그것은 주인의 포도원이 웃자라 있음이 아니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구하고자 한 번 더 노력하기로 했다.(야곱서 5:29~51 참조)



70

64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졌다. 예언 55 참조.
경전 안내서, "예루살렘";
scriptures.lds.org

65 예언
 후기에 천사의 성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6~7

66 예언
 주님께서 후기에 광대한 선교 사업으로 그분의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14~16

67 예언
 사탄이 천 년 동안 결박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6

68 예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21:1~10, 22~27

69 초기의 사도들이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복음 의식들이 사라졌다. 예언 56 참조.
데살로니가후서 2:3;
요한계시록 12:1~6

70 리하이의 후손들이 사악해져서 복음을 거부했다.
물문서 8:1~10;
모로나서 1장

7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다. 예언 33 참조.
조셉 스미스-역사 1:14~20; 교리와 성약 1:17~23

72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물문경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예언 33 및 61 참조.
조셉 스미스-역사 1:27~54

73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권을 지상에 회복했다. 예언 65 참조.
조셉 스미스-역사 1:68~73

7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미국 뉴욕 주 페이엠티에서 조직되었다. 예언 42 및 62 참조.
교리와 성약 20~21편

75 예언 모든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주님의 종들은 함께 성찬을 취하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27:5~14

76 예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천년 기간에 천 년 동안 지상에 거하실 것이다. 또한 예언 44 참조.
교리와 성약 29:10~11

77 예언 사탄이 다시 풀리고 잠시 세력을 떨칠 것이며, 그런 후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교리와 성약 43:29~33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선지자 조셉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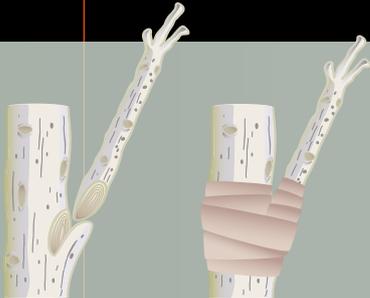
1830년

1900년

2000년

71 72 73 74 75 77 79 81 82 83 76 78 80

84 85 86



지노스의 비유(1800년경~복천년)

포도원의 주인은 종들에게 원가지들을 가꾼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고, 들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다시 원나무들에 접붙이도록 하였다. 그는 종들에게 "좋은 것이 자라는 데 따라서" 정성 들여 가지들을 접붙이라고 했다. 다른 종들을 데려와 돕도록 했으나 그들의 수가 적었다. 그는 충실한 종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했다.(아곱서 5:52~73 참조)

79 예언 모든 충실한 성도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끌려 올라가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8:95~98

80 예언 복천년이 끝난 후 마지막 큰 전쟁에서 악마와 그의 군대는 천사장 미가엘과 천군에게 패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8:110~116

81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영원한 성약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들을 맡겼다. 예언 65 참조.
교리와 성약 110:11~16

82 나부의 성도들이 성전을 지었고, 죽은 자를 위한 의식들이 회복되었다.
교리와 성약 124:29~34

8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본부가 북미의 서부 지역에 세워졌다. 예언 42, 60, 62 참조.
이사야 2:2~3

8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예언 60, 62, 66 참조.

85 신권의 축복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합당한 사람에게 부여되었다. 예언 62 참조.
공식선언-2

78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 산과 감람 산에 서실 것이며, 여러 대륙은 한 땅이 되고, 열두 지파가 각각 상속을 받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33:17-35;
신앙개조 제10조

1 예수 그리스도가 (성지에 있는) 예루살렘과 (북미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신다.
예언 78 참조.

2 재림이 도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지상에 오신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과 예복 성이 회복된다.
예언 52, 53, 78 참조.

3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한다.
예언 79 참조.

4 레위의 아들들이 의로운 가운데 주님께 제물을 드린다.

5 모든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함께 위대한 성찬식에 참석한다.
예언 7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사람의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옛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던 것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보낸 나의 영원한 성약 곧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너는 복이 있다.”(교리와 성약 66:2)



2

지노스의 비유

포도원의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 몸같이 되며, 그 열매가 고르[게]” 되었다. 포도원의 주인은 부지런히 일한 종들을 축복했고,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야곱서 5:74~76 참조)



6

지노스의 비유

못된 열매가 다시 포도원에 들어왔다. 주인은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골라냈다. 나쁜 열매는 내던져지고, 포도원은 불살라졌다.(야곱서 5:77 참조)

86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복음 의식이 가능하도록 온 세상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교리와 성약 124:37~42

6 복천년이 도래하여 천 년간 화평이 이어진다. 땅이 새로워진다.
예언 44, 52, 53, 76 참조.

7 사탄이 풀려난다.
예언 77 참조.

8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난다. 악마와 그의 군대가 패한다.
예언 80 참조.

9 모든 사람은 부활한 후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거나 바깥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사탄이 영원히 추방된다.

10 땅이 성결해지고 영화롭게 된다.
예언 68 참조.

행복한 추억의 홍수

배 관이 오래되고 기초가 부실했던
어릴 적 우리 집은 폭풍이 큰비를
몰고 올 때마다 침수되기 일쑤였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폭풍은 여러 시간
몰아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잦았다.

그 집에서 성장기 대부분을 보낸 나는
홍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몇 차례 폭풍을 겪으면서,
우리는 홍수 극복 전략을 개선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웠다. 폭풍은 때로
한밤중에도 들이닥쳤는데, 느릿하게

어 린 시절, 우리 집이 침수가 되면,
아버지와 형은 물통으로 물을 계단
밖으로 퍼냈고, 누이와 나는 수건으로
재빨리 물을 흡쳐 냈다.

움직이는 용암처럼 지하에 물이 차
오르면, 부모님은 우리 모두를 깨워
각자의 위치에서 대처하게 하셨다.
아버지와 형이 물통으로 물을 계단
밖으로 퍼내는 사이에 누이와 나는
수건으로 재빨리 물을 흡치며 양탄자를
지키려 했다.

우리는 발가락 사이와 잠옷
바짓가랑이 사이로 질척질척하는 물기를
느끼며 그 수건들 위에서 폴짝거리고
춤을 추고 킬킬거렸다. 엄마는 흠뻑 젖은

수건들을 서둘러 짜내어 건조기 속으로
던져 넣은 다음, 발로 밟을 새 수건들을
가져오셨다. 이만하면 집이 안전하겠다고
안심이 될 때면,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몸을 말리고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따뜻한 코코아와 쿠키를 즐겼다. 그리고
아직 등교할 시간이 멀었을 때에는
잠자리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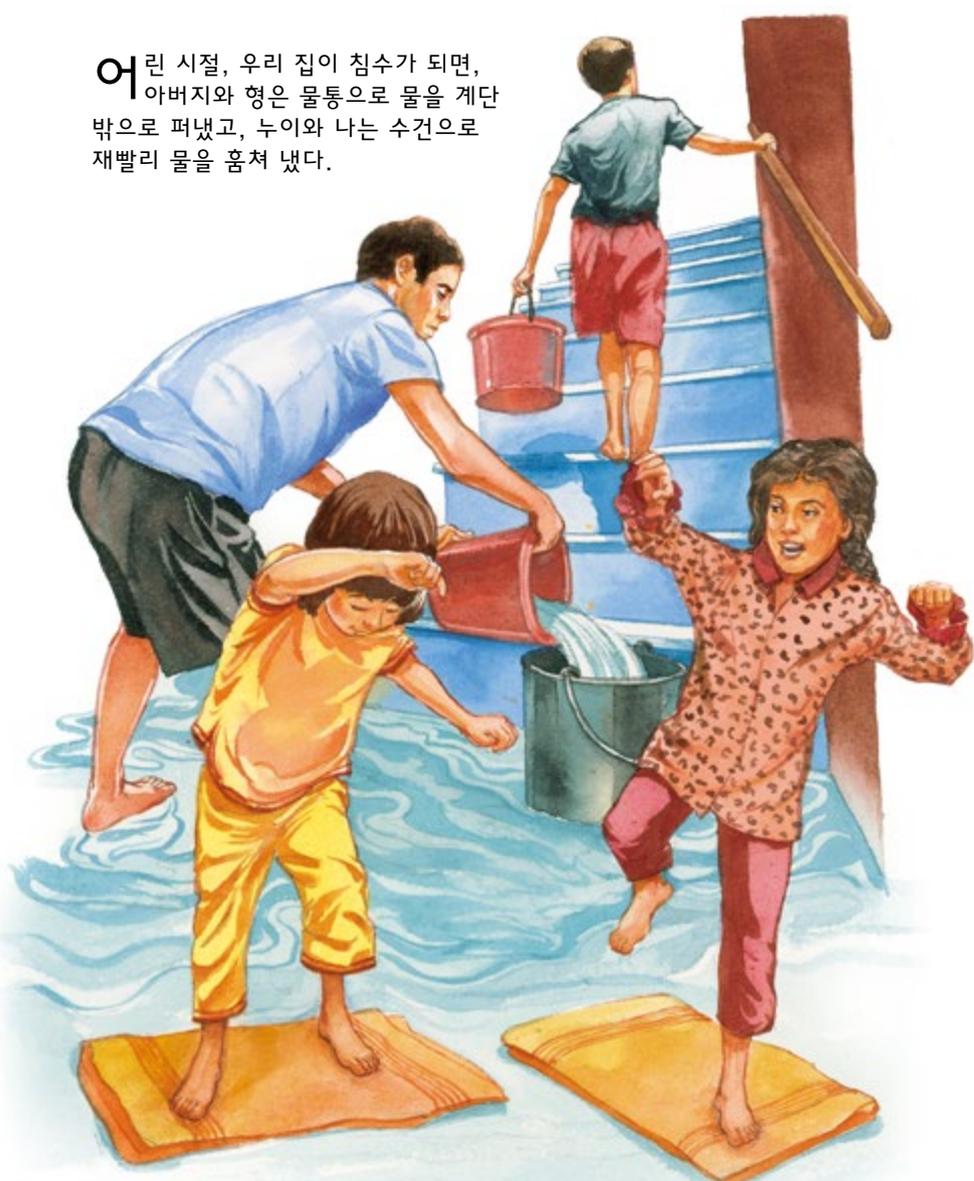
홍수는 부모님에게 커다란
걱정거리였지만, 변칙이는 변개와
우르릉거리는 천둥소리에도 아랑곳없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중 하나로 기억된다. 사실, 젖은
양탄자 냄새는 가족과 함께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부모님 두 분이서도 홍수에 맞설 수
있으셨겠지만, 나는 우리 집을 지키는
데 모두를 참여시켜 주신 것에 무척
감사드린다. 우리는 모두 함께했고, 각자
역할이 있었기에 물과 싸우는 일은
즐거운 행사와도 같았다.

어른이 되어 그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는
그런 기쁨을 내 자녀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지금 사는 우리
집은 감사하게도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집으로 밀려들어올 일이 생기기라는 것을
나는 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떠한 역경과
마주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또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모여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함께 일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웃음 지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지나 스코니어스, 미국 유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신권 축복

몇 해 전, 우리 와드의 한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병원 직원은 당시 스테이크 회장인 내 남편에게, 지금 한 17세 청소년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 줄 수 있는지 물어 왔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그 청남이 발코니에서 9미터 아래 보도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고, 생존할 가망성도 없었다.

남편은 같이 식사했던 형제님과 함께 그 청남을 축복해 주었다. 약 1,6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사는 그의 가족에게 사고와 부상 상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기적적으로, 며칠간 주의 깊은 치료를 받은 그 청남은 의식을 회복하고 치유되기 시작했다. 4주간 그의 부모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했다.

그 청남이 신권의 치유 권능으로 건강한 미래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맞는 모습을 지켜본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거룩한 권세로 신권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남편과 와드 회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깊은 감사를 느꼈는지 모른다.

나는 위기에 처한 아들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의 부모님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또한, 아들이 신권 축복을 받았고 교회 회원들이 가까이 도왔다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된 그들을 보며 마음이 기뻐다.

그리고 몇 년 뒤,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나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3,200여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사는 내 아들이 그가 공부하며 일하는 대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다.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전임 선교사들이 연락을 받고서 그 아이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고,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 와드 회원들이 아들네 가족을 도왔다는 소식이 감사함과 위안을 느꼈다. 와드 회원들은 아들네 집에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사고 바로 전날 아이를 출산한 우리 며느리를 도와주었고, 나머지 세 아이도 돌봐 주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축복해 준 그 선교사가 5년 전에 남편에게서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청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깊은 감사를

전 임 선교사들이 연락을 받고서 내 아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는 소식이 감사함과 위안을 느꼈다.

느꼈는지 상상이 되는가? 정확히 베푼 만큼 돌려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나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는 나의 신앙은 더 깊어졌고, 그분에 대한 나의 감사 기도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내가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견지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 젊은 선교사가 그곳에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

줄리 키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은 큰 병을 얻게 되었다. 나는 우리의 다섯 아이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편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다. 하지만 내 기도는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죽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 신뢰가 무너져 내려 버렸다. 나는 양어깨를 짓누르는 책임들로 압도될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곁에서 도움을 주셨다.

두어 해가 지난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친근한 웃음을 띠고 각각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낯선 사람 두 명이 거기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난생 처음 들어 보는 교회였다. 내가 바쁘다고 하자 그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나는 계속 그들에 대해 생각했다.

이튿날, 나는 우리 이웃에게 그 책을 보여 주는 선교사들을 발견했다. 호기심으로,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선교사들은 나를 알아보고는 우리 집을 방문해도 되냐며 다시 물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선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물문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는 그동안 살면서 저지른 실수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침례를 받는 날, 나는 불안했지만 물로 들어가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나를 가르친다는 말을 들은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시며, 나와 내 자녀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다. 선교사들은 내게 침례를 권했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나로서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을 떠나기 전에 장로들은 나에게 제3니파이 13장 31~34절을 읽어 보라고 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절) 이 구절을 읽고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다시 왔을 때, 우리는 함께 침례를 계획했다.

침례를 받는 날, 어머니의 노한 음성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불안했지만, 물로 들어가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자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짐을 내려놓는 기분마저 들었다.

내가 교회에 가입했다는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나와 의절하셨다. 하지만 이듬해에 우리는 화해를 했고, 그 뒤에 부모님의 승낙 아래 나의 두 자매가 침례를 받았다.

우리 세 자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는 내가 교회 회원이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내게 물문경을 소개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와준 두 선교사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 ■

아베테미아 트루히오, 필리핀 알바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약 40년 전, 뉴질랜드 레빈 마을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나는 화요일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했었다. 복음이 풍성히 실린 초등학교 노래들을 함께 부르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느꼈던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2013년 2월에 나는 휴가를 받아 뉴질랜드를 다시 찾았다. 도보 여행을 열렬히도 좋아하는 나는 남섬의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에 있는 유명한 밀포드트랙에서 4일짜리 도보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영국,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우루과이 등 전 세계에서 온 37명의 여행자와 미국인 3명이 나와 일행이 되었다. 탐험을 떠난 우리는 언어 장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굳건해지는 유대감 속에서 문화적 차이와 선입견들이 녹아 없어지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보 여행 3일차 되던 저녁에 여행자 한 사람이 우리가 쌓아 가는 이 우정을

기념하고 싶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기 자랑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이스라엘 카이사레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사무실에서 연마해 온 이야기 구연 실력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이야기가 재미났기에, 그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소 음란한 내용으로 흘렀고, 이 밤의 행복이 상쇄되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일행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 줄 수 있을까? 곧이어 강렬한 응답이 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를 부르라!

긴장이 되었지만, 뉴질랜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떠올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 40년 전에 뉴질랜드 어린이들과 불렀던 특별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이 일행에게 축복이 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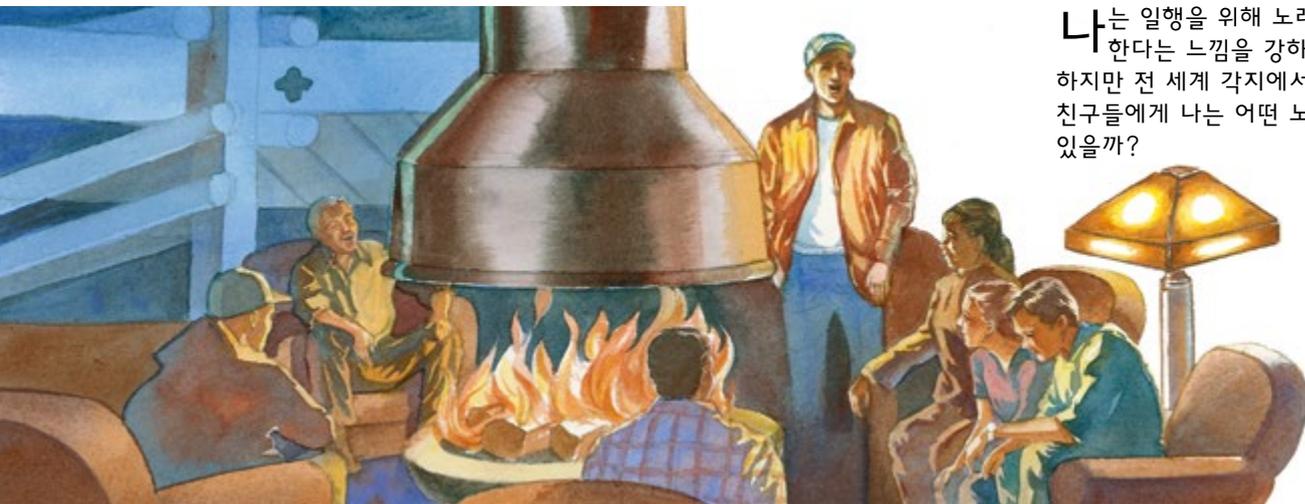
노래는 잘 나왔고, 나는 영을 느꼈다. 나의 새로운 친구들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노래로 마음이 열린 것 같았다.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일어서서 음악과 관련된 장기를 보여 주었다. 처음에는 참여를 꺼렸던 4명의 숙녀들이 그들 교회의 합창곡을 몇 곡 불렀다. 한 여행자는 유대인 민요를 가르쳐 주었다.

장기 자랑 말미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전통 언어인 마오리어로 노래 3곡을 불렀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정제해 주었고,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여러 나라에서 온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에베소서 2:19)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 준 작은 레빈 마을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한 그 추억 덕분에 노래로 간증을 나눌 용기를 얻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데이비드 엠 플리트, 미국 유타

나는 일행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 줄 수 있을까?



바다의 해류와도 같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향력은 우리 인생을
위한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데니스 시 건트

망은 어린이가 그렇듯, 나에게도
나중에 커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나는 내가 달
위에서 활약하는 소방수가 될 거라고
확실했었다. 다섯 살짜리 아이였던
나에게 인생이 다른 길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이다음에 자라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줄은 정말
몰랐어!” 하고 외칠 때도 있을지 모른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경전 구절이 있다. 첫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8~9).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시”(니파이후서 26:24)



이 성구들에는 비록 우리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것보다 높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승격하여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좀 더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방랑 중에 의심하며

종종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움직이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 나아갔다.(민수기
9:15~18, 21~23 참조) 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을 “의심” 속에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 움직일까,
언제 어디서 머물까, 언제쯤이나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말이다.

이 이야기는 풍부한 상징을 담고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필멸의 광야를
여행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그분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순종하고 회개하며
신권 의식을 받고 충실하게 견디는
동일한 여정을 따라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지상에서 이루게
하시려는 개개인의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의
조류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방향의



해류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따를 수 있도록 영을 통해 노력합니다. 스스로를 그것에 맞추십시오. 기꺼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그것을 따르도록 하십시오.”¹

불편한 곳에서 1년을 보내는 것, 아니면 아주 멋진 곳을 단 이틀 만에 떠나는 것, 그중 어떤 것이 더 이스라엘 진영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까? 나는 그들이 그 두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며 신앙의 시험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 상황이 바뀔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 버릴 수도 있다. 혹은 현재의 즐거운 일상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들이닥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커다란 부분이다. 방랑하며 의심하는 가운데 생의 나날을 보내 버린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멋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오늘 나가 선행하라

1831년 봄, 성도들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모이기 시작했다. 교회 회원인 레먼 코플리는 뉴욕 콜스빌에서 오는 성도들이 커틀랜드 근처 톰슨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머물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831년 5월,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또 나 주가 달리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 곳에서 떠날 것을 명할 때까지, 나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이 땅을 성별하여 주노라.

그러나 그 시와 그 날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이것이 돌이켜 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1:16~17; 강조체 추가)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다닌 이스라엘 자손들과 많은 점이 비슷했던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코플리 농장에서 영원히 지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는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 상황이 바뀔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멋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곳에 있을 것처럼 활동해야 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권고를 주셨을까? 몇몇 성도들은 어찌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진흙땅의 마차와 천막에서 보내는 삶에 실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의 권고는 그들의 관점을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멋진 가족과 집, 근사한 직업과 뚜렷한 삶의 방향 등 우리가 꿈꿔 온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와드 또는 지부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구태여 부름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나? 사람들과 알고 지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에 계속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놓치게 되고 만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지금 주 위해 일할 기회 **많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뒋날** 하리라’고 미루지 말아라, 오늘 나가 선행하라”²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한다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중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나는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을 것이다. 미래를 향한 소망은 계속되었지만, 그동안은 이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리라.’ 이것은 마치 물속을 걷는 일과 수영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결국 톰슨의 성도들은 그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했다. 레먼 코플리는 자신의 땅에 성도들이 머물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깨트렸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주리로 보내셨지만, 그 성도들은 그 농부의 땅에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을 입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현재라는 골짜기는 미래의 경험이라는 산 위에서 돌아볼 때에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의 시기가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종종 우리 성품의 기초를 세우는 필수 요소가 되고, 미래에 얻을 기회와 이해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인생의 여정에 놓아 줍니다.”³



너희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할지이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려 고집함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예루살렘을 떠난 리하이의 이야기를 레이맨과 레뮤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므로 가족과 떠나야 한다고 리하이가 말했을 때, 그들의 안락한 삶은 갑자기 휘방받게 되었다. 그들은 광야로 갔지만, 결국 라반에게서 낚시 판을 얻어 오기 위해 곧바로 돌아와야 했다. 그렇게 가혹한

사막을 걸어 묵묵히 나아갔지만, 결국은 라반에게 값진 물건들마저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다면? 나 역시 화가 났을 것이다!

게다가 예루살렘도 전과 다름없어 보였을 테니 레이맨과 레뮤엘의 분노는 더했을 것이다. 돌아가면 연기만 자욱한 폭 꺼진 폐허를 보리라 기대했던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생각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곳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거지?’ 어쨌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니파이와 샘에게 곧바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니파이전서 3:29 참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불기둥이 탐탁할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어떤 농부의 밭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역시 그만큼 실망하고, 레이맨과 레뮤엘처럼 자신의 신앙을 부숴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실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기를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작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우주의 시계와 달력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훈계를 하려고 합니다.”⁴

물론 삶은 쉽지만은 않으며,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인생이 정확하게 예상대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반면에 나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다. 비록 그들이 커서 달의 소방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와 같은 긍정적인 관점은 우리가 자신의 광야에서 낙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충실하게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광야에서 한 경험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까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

너희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할지이다. 그리하면 나의 정한 시간에, 너희가 합당할 때에, 너희는 …… 보고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67:13~14)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리아호나 5월호나 conference.lds.org에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4월 연차 대회 말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를 찾아본다.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5쪽.
2.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찬송가, 182장.
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8쪽.
4. 닐 에이 맥스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소망”,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3쪽.

부정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위한 더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은
긍정적인 답을 주신
것이었다.



안젤리카 해그먼

스웨덴의 고3 학생이었던 나는 미국 유타의 브리검 영 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 결정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드렸지만 그 선택이 옳다는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혹시 내 선택이 옳지 않다는 응답일까? 특히 나는 성전 결혼을 바라고 있고, 스웨덴에 있는 것보다 BYU에 가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BYU에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았다. 내 경우에는 말이다. 시기적으로 아니었다.

실망한 나는 BYU 입학 계획을 포기하고 스웨덴에 있는 한 대학교에 지원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BYU를 향해 탐험을 떠났을 그 시기에 갖 귀환한 선교사인 요나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요나스가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도 여러 청소년 활동을 함께했을 텐데, 나는 그를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었다. 어떻게 그의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웃음이 나를 지나쳐 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요나스는 BYU에 입학 지원을 했으며, 가능하면 다음 학기부터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요나스가 프로보에서 첫 학기를 마친 후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그 뒤에 함께 BYU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같은 날에 함께 졸업했다.

옛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BYU 입학과 관련된 나의 열렬한 기도에 '아니다'라는(사실 "아직은 아니다")였지만 부정적인 응답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그때에는 나의 열망을 반대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소망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해 주신 것이었다. 어릴 적에 나는 미래의 남편과 내가 알맞은 시기에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자주 드렸었다. 요나스와 BYU에서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더 큰 계획에 따라 우리가 스웨덴에서 만날 필요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어찌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부정적인 대답은 우리 삶의 더 큰 계획에서의 긍정적인 대답을 위한 필수 요소들일지 모른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겐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쓴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셨다. 그것이 곧 세상의 죄를 속죄할 구주를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잘 아셨던 까닭이다.(제3니파이 11:11 참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그분의 응답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구주의 속죄가 포함된 위대한 계획에 맞추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출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을 드러내실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에서 간구하셨던,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한복음 17:21)

긴 안목에서, 더 중요한 다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어떤 기도에는 ‘아니다’라고 다정히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더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는 참으로 놀라운 권능과

힘과 위안의 원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그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다만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토마스 에스 문슨, “우리는 결코 혼자서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1쪽.

우리가 배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진리

한때 실족했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더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일 부 젊은이들은 의문을 품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며, 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 말씀을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영적인 부채

우리 모두 영적인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채는 쌓여 갑니다. 하지만, 갚아 나간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제를 배움으로써 부채를 미리 청산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자와 벌금을 물어야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정기적으로 영적인 빚을 갚아 나가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험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일, 또 바로잡기는커녕 사죄조차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했을 것이며, 그래서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적인 면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만기일이 지난” 영적 부채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사색하며 내면을 들여다볼 때, 해결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우리 대다수는 이런 시간을 애써 피하려 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어느 정도까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하고 그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의 편지를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묻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변화할 수는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위안을 주는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비탄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배웁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크든 작든, 완전한 용서가 약속될 수 없는 습관도, 중독도, 반항도, 범법도, 범행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기만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주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도 강렬한 충동,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에 중독까지 됩니다. 우리는 범법하거나 죄를 짓기 쉬우며,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에 죄가 없다고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져, 구주께서만 치료하실 수 있을 고통과 비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또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방울뱀으로 불리는 음란물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님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외설물을 모으거나 보는 것은 가방에 방울뱀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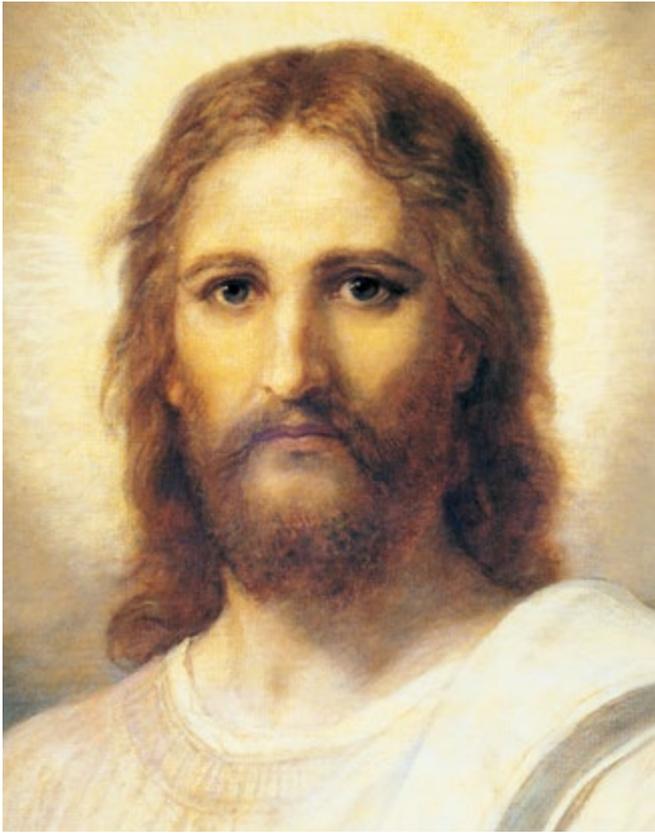
받은 부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음란물의 재앙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간해서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란물은 생명을 낳는 힘의 원천인 여러분의 본성을 겨냥합니다.

음란물에 빠지면 어려움과 이혼, 질병 등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는 순결한 부분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보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가방에 방울뱀을 넣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서,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 음란물에 노출되거나 읽고 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다면, 경고하건대, 그러지 마십시오. 당장 멈추십시오!

물론경에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니파이후서 2:5)고 나오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주님께만 고백하면 되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법도 있습니다. 심각한 실수라면, 감독님에게 가서야 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면 사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용서가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을 극복해 내는 것도 시험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죄를 고백하고 버렸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기꺼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죄값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상태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 희생을 완수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고난을 어떻게 치르셨는가보다는 왜 치르셨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사도들 곁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기꺼이 온 세상의 실수와 죄, 죄책감, 의심,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신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휘청거리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더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곁에는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니파이후서 25:23) 받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진리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용서의 밝은 아침을 맞을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이 해가 떠오르듯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도 주님도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예레미야 31:34)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4:1~3 참조)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대가를 늘 치러 주신다는 점에서 주님은 매우 친절한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이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주님을, 또한 그분을 보내 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낙담과 죄, 죄책감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관대한 조건에 따라 부채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내용에 “완납” 표시가 붙을 것입니다.(이사야 1:18~19 참조)

충실하게 생활하시고 합당하십시오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 이 권유에 따르는 약속은 대적으로부터 보호되고 평강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12 참조)

만사가 험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사형통해 보이는 사람의 삶도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든 미래든, 평강과 신앙을 갖고 버텨 나가겠다는 신념과 낙천주의로 인생의 도전들에 맞서십시오.

받고 싶거나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한, 구속과 구원에 필요한 어떤 경험 또는 기회도 박탈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희망을 품고

안내하며 자주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결국에는 잘될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인도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청년 여러분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해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육신 없는 사탄을 이길 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¹ 사탄은 육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혹이 온다 해도,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져 이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 온 우리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2011년 11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11쪽 참조.

여러분도 용서의 밝은 아침을 맞을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우리들 공간

표준과 친구

학 교에 다니게 된 이후로 나는 우리 종교의 도덕 표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나는 정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덕분에 나도,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는 존경과 평화, 즐거움이 존재하게 되었다.

비토리아 엠, 브라질



친구들이 기분을 상하게 할 때면, 나는 논쟁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논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친구들이 교회에 관한 몇몇 주제들로 토론을 시작할 때면, 나는 그저 복음에 대한 내 믿음을 간증한다.

나는 늘 사과를 받든, 받지 못하든 친구들을 용서한다. 용서란 단순히 “사과를 받아들일게.” 또는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용서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친구들이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친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친구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선교사로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슈아 브이, 필리핀

친구를 용서하는 일

나 는 내 또래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어서 종종 친구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을 겪는다. 때로 친구들은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한다. 그럴 때면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표준을 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가장 좋아하는 성구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작고 단순한 일로”(엘마서 37:6) 그분의 일을 진척하신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셉 스미스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 회복은 아주 단순한 일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웃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한 위인보다는 충실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로닉 알, 아이티



선교사 동반자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 단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연스럽게 즐거운 방식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3쪽 참조)





바나나 빵 선교사들

이 청년들은 빵 한 조각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삶은 물론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전한다.

민디 레이 프리드먼
교회 잡지

누군가 맛있는 바나나 빵을 건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에콰도르에 있는 한 와드의 청년들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다.

격달로 그들은 와드의 지역을 돌면서 선교 전시회를 겸한 선교사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그들은 각각 청년 한 명, 전임 선교사 또는 최근에 귀환한 선교사 한 명, 장로 신권 소유자 또는 대제사 신권 소유자 한 명씩을 배정하여 팀을 구성한다. 일부는 천막에서 일을 거두고, 몇몇은 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몇몇은 가가호호 전도를 한다.

그러다 누군가를 만나면, 바나나 빵 한 덩어리를 건네는 것이다. 상대가 빵을 받아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몸에 좋고 맛있는 이 빵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메시지를 선교사들에게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청년들과 동반자들은 그 사람에게 선교사들과 만나 볼 것을 권유한다. 이런 방법으로 청년들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이 속한 정원회 회원들과 우정을 나눈다. 매주 토요일에 그들은 청년 활동 모임에서 만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 같이 정원회의 저활동 회원을 찾아 나선다. 청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저활동 회원들을 격려하고, 운동 경기나 다른 활동 모임에 초대한다.

이러한 일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청년들은 평생토록 봉사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다. 두 청년(오른쪽)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강화되고 영감을 받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와드 사진: 팀, 북, 포, 제, 만



복음을 통한 변화

저는 5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회원이 아니시지만, 저의 삼촌이자 청남 회장인 호르헤 형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와드에서 개최한 선교사의 날 모임에 하루 동안 참석해 본 후, 교회와 더 가까워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관해 제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사, 교사를 거쳐 제사가 되기까지 지도자분들은 제가 늘 모든 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 전시회 행사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누리는 축복을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저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1년 전, 당시 15살이던 남동생 루이스와 12살이던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동생들이 침례를 받으니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활동을 통해 훌륭한 경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드의 모든 청남은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며, 서로를 돕습니다.

저는 침례가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모사이야 2:17 참조) 선교 사업은 가족을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 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알바로 티, 17 세

책임감을 배우며

집사였을 때 저는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과 지도자들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저의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사였을 때 저는 가정 복음 교육을 했고, 선교사의 날에는 선교 전시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바나나 빵을 나누었고, 상호 향상 모임과 와드 및 스테이크 활동에 참여하면서도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가 된 저는 선교 사업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남 회장님과 함께 일하고, 감독님의 보조로 봉사하면서 신권 소유자로서 제가 받은 책임에 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분들과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하도록 끊임없이 권유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친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경전을, 특히 몰몬경을 읽도록 늘 권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제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준비하게 해 줍니다.

아이작 지, 17 세

여러분의 선교 사업 경험

어떻게 여러분은 작고 간단한 일을 통해 복음을 나누어 왔습니까? liahona.lds.org에서 "자료 제출"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시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써서 보내 주십시오.





공항에서 경험한 기적

작은 속삭임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토머스 이 로빈슨 3세

일 본에서 새내기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나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누구의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어려웠고, 특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을 보이려 노력했고, 사랑을 보이며 도와주려 하는 분들의 노력에 감사해했다.

워드 회원인 센바 자매님은 동반자와 나에게 손수 만드신 빵을 매주 주셨다. 자매님은 직접 구운 빵과 진심 어린 쪽지를 써서 선교사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다.

누군가가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다. 나는 작은 보답으로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자매님과 그녀의 가족이 우리를 돕기 위해 바치는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쪽지를 썼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으며, 나는 그분을 '타향의 어머니'로 생각하게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어느 수요일, 이른 아침에 선교부 회장님으로부터

오키나와로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나자, 희비가 엇갈렸다.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두려웠다. 워드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깊이 사랑하게 된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렇게 전화를 다 걸었지만, 아직 통화를 하지 못한 마지막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센바 자매님이었다. 가슴 깊은 곳까지 유대감을 느꼈던 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울적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른 두 명의 선교사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발권 창구에 도착해서 항공권을 사려고 하는데, 창구 직원이 우리의 카드로는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공권을 살 돈도 없는 상황에 비행기는 10분 후에는 출발할 예정이었다! 우리 셋 모두 공항 상태가 되어 버렸다.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그날은 공항에 묶여 있어야 한다.

그때, 고개를 돌리자 공항으로 걸어들어 오시는 센바 자매님이 보였다. 내 머릿속은 공항 상태에서 벗어나 평온해졌다. 자매님은 분명 우리의 비행기 시간을 알지 못하셨을 것이기에, 나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자매님은 다급히 다가오시더니 웃음 띤 얼굴로 비행기에서 먹으라며 우리 모두에게 빵을 건네주셨다.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자매님은 함께 안타까워하셨다. 우리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때, 센바 자매님이 지갑을 살살이 뒤지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셨다. 마침내 자매님은 몇 주 전에 작은 봉투에 넣어 지갑에 두었던 5만 엔(약 52만 원)을 발견하시고는, 행복해하며 폴짝폴짝 뛰셨다. 그 금액은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액수였다. 자매님은 돈을 주셨고, 우리는 시간을 맞춰 항공권을 살 수 있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작별

참으로 주님께서는 작은 방법들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인사를 한 후, 우리는 비행기를 향해 질주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한 선교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센바 자매님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제야 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적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다. “장로님한테 준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는 센바 자매님께서 빵과 함께 주신 쪽지를 읽고 있었다. 그제야 내게도 쪽지를 써 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매님이 주신 작은 종잇조각을 꺼내어 읽어 보면서 금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저도 늘 장로님을 기억할게요!”

그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영이 느껴졌다. 센바 자매님의 모범으로, 아무리 작아 보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영이 속삭이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한 영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낮게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다. 자매님께서 공항으로 오신 일이 우연이 아님을 나는 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작은 방법들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생활하여 이러한 영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편집자 주: 센바 자매는 즉시 선교부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았다.



“엄마는 온종일 일하세요. 엄마와 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를 자주 뵈 수 없다면,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를 어머니께 여쭙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여쭙 보세요. 귀가하실 때 집이 깨끗하길 바라시나요?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할까요? 그냥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께서 고맙게 여기실 만한 일을 정기적으로 해 드린다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함께 즐길 재미난 일을 계획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관계를 수립해 가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할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된 일정들이 여러분과 어머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어머니와 여러분이 각자 기대하는 것들을 털어놓는다면, 오해가 생기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도록 영감으로 그 방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더라도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세요.(엡마서 37:6 참조) 예를 들면, 안아 주거나 웃는 얼굴을 보이는 일들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쪽지를 써 보세요



얼굴을 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사려 깊은, 둘만의 쪽지를 써 보세요.

어머니는 직장에서 그것을 읽으며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가능한 많은 것을 해 드리세요. 어머니를 좀 더 자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관계를 향상할 방법을 알기 위해 영감과 속삭임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이린카 이(20세), 우크라이나 오데사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애써 보세요. 가정에서 집안을 청소하고, 형제자매를 돕고,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경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 엠(18세), 멕시코 치와와

특별한 일요일을 보내 보세요

저희 가족은 특정 일요일을 정해서



새로운 후식을 포함한 특별한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었으며, 마지막에는 찬송가를 부르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가족은 더 친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레베카 앤(12세), 브라질 상파울루

실험을 해 보세요

저희 가족은 가정의 밤, 놀이, 해변 소풍, 점심 식사와 같이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일 덕분에 좋은 관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랄 수 있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서로 비난을 삼갔습니다. 저는 때로 집안일을 하기 싫다 한 적도 있는데, 그런 행동은 가정에 불화만 불러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평을 덜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집안일을 더 많이 돕고 엄마와 함께 더 많이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행복한 분위기가 감돌고 서로 더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글렌다 시(18세), 브라질 바이아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집안 곳곳에 있는 일을 더 많이 하세요. 어머니는 온종일 일을 하고 오십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일거리가 줄어든 것을 보시면, 아마도 더 행복해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더 오랫동안 대화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직장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여쭙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엄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며, 엄마와 더 가까워지게 해 주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헤더 비(18세), 미국 오리건

둘이 함께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저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라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보드 게임은 엄마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내어 놀고 웃으며 추억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마음을 열면 결국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표징입니다.

이프리엄 에스(15세),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엄마와 함께 매일 단 5분간이라도 물문경이나 다른 교회 책자를 읽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루하루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압니다.

로라 엠(19세),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어머니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규범을 충실한 어머니에게서 찾으십시오. 영원한

관점이 결여된 가치관을 지니며 주님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유명 인사들보다는 어머니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따르십시오. 어머니가 발휘하는 힘과 용기와 충실함을 배우십시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머니는 문자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과 주님께 관한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어머니와 딸,”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9쪽.

다음 질문

“부모님이 막 이혼하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가족을 깨뜨려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4년 9월 10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보니 엘 오스카스
본부 청녀 회장

중력을 이기고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외부의 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꾸준히
전진해 나간다면, 굳건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여덥 살 때, 제게 두발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빠와 아버지의 도움 속에 상당한 두려움을 안고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최소 3미터는 돼 보이는 자전거 안장에 겨우 걸터앉았다가 쓰러질 때 아무것도 나를 받쳐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과연 중력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시도를 계속 하다 보니,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장에 앉았을 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앞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물리적 현상을 이해했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기만 한다면 똑바로 설 수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치지도 않게 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저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면 중력의 영향 속에서도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대적의 영향력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 소책자에 요약되어

있는 제일회장단의 권고에 끊임없이 순종하면 삶이 균형을 잡고 안정되리라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결같이 충실하게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아침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십시오.
-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 모든 행동은 우리를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설명된 표준들을 읽고 친숙해짐으로써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생활하며 계명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항상 성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면 중력의 영향 속에서도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대적의 영향력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론 신권을 소유한 모든 청남에게 앞으로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은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으며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제일회장단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전을 중심에 두십시오.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등 주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¹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의로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우며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집약해서 보여 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제가 여덟 살 때 배운 것처럼 중력을 이기고 자전거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신앙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 중에는 바로 저 길모퉁이만 돌아서면 되는 곳도 있지만, 평생토록 충실하게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페달을 밟고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ii.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결혼과 가족



결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혼에서 얻는 보상은 매우 큼니다. 결혼은 정말 멋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생각이나 느낌 모두가 닮아갑니다. 지극히 행복할 때도 있고, 시련이나 고난을 겪는 시기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결혼에서 얻는 영원한 축복”,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6쪽.

결혼이 멋진 이유

우리는 우리가 결혼한 것이 정말 좋다. 그 이유는 이렇다.

벤 닐슨과 레이첼 닐슨

처 음으로 데이트를 한 후에 우리는 둘 다 서로를 다시 만나 보고 싶었다.

벤은 친절하고 대화를 재미있게 이끄는 레이첼과 다시 데이트하고 싶었다. 레이첼은 벤이 잘 준비해 온 모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친절했고, 계속 밝은 표정을 보여 주었기에, 벤과 또 다시 데이트하고 싶었다. 두 번째 데이트를 마친 후, 우리는 계속 많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만남을 이어갔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으며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결혼식은 아주 순조로웠으며, 그 이후로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왔다. 결혼에 관한 세상의 관점은 다른 듯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떠한 유형의 관계도 그만큼 큰 기쁨 또는 좋은 것을 가져다주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결혼이 멋진 이유를 말해 보자면 이렇다.

벤: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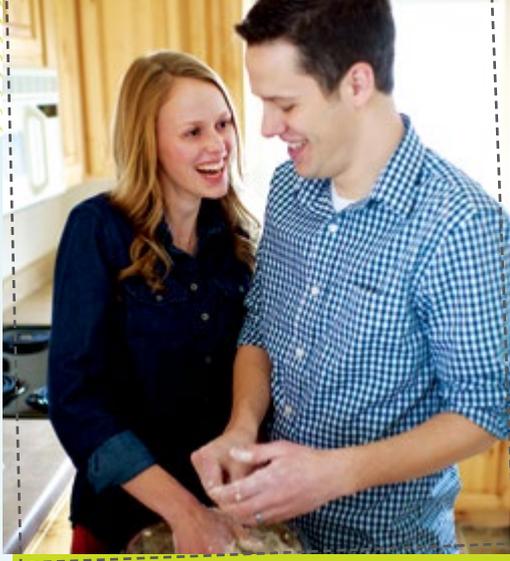
나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미식축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 종목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는 내 곁에 팀원이 있다는 것과, 팀과 함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점이다. 레이첼은 환상적인 팀원이다. 그녀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와 함께해 준다.

성전에서 인봉되었을 때,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돕기로]”² 약속했다. 레이첼과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서로 지지하려고 애쓴다. 나는 언제나 믿을 만한 팀원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든든하다.

레이첼: 사랑의 표현

여자에게든, 남자에게든, 솔직히 말해,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일처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을까? 결혼을 하면, 매일 사랑을 주고받는 기회가 많다. 벤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께서 부인에게 하신 것처럼 너에게 자주 진지하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구나.”³ 나는 그 말씀을 새겨 들었다.

나는 벤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며, 벤은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언제나 애써 왔다. 대학 졸업반 때, 나는 몇달 동안 유망한 인턴십 면접에 지원하고자 준비했었다. 그리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꽃병 가득 꽃을 꽂아 놓은 것을 보았다. 남편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그 인턴십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았다. 평소에도 남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와 사랑을 담은 쪽지를 냉장고에 감춰 두고서 주말 스카우트 야영을 떠났었다. 그리고 매일 설거지를 해 주고, 나에게 웃음을 준다. 남편이 사랑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정말 즐거울 수 있다.



벤: 더 큰 즐거움

레이첼과 하는 데이트는 아주 재미있다. 사실, 우리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주 데이트를 한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서로가 비슷한 취미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공원 산책, 연극 공연 참여, 운동 경기 관람, 새롭고 색다른 음식 먹기, 음악 감상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레이첼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을 즐거워했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결혼을 하면, 누군가와 함께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레이첼: 영원한 선교사 동반자

벤을 만나기 전에, 나는 선교사로 봉사할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전임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었다. 하지만 벤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다른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약혼했을 때, 내가 선교사 봉사를 고려하던 것을 아는 친척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왔고,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제 선교사 동반자를 직접 고르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구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벤과 나는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워 나가고 있고, 복음을 공부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사랑이 깊어졌으며 삶이 더 충만해졌다.

우리를 믿으세요

세상이 뭐라 해도 결혼은 멋지고 우선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팀원이 생기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삶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런 행복을 영원히 느낄 수 있다!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며, 최고의 신권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풍성한 성취감을 맛보았다.”⁴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엘 워트니 클레이튼,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3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결혼 생활에서 오는 축복”,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6쪽 참조.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리아호나*, 2007년 4월호, 4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아주 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및 가족 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떤 특성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 미래에 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및 가족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몇몇 친구들에게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려는 여러분의 목표를 나누고 그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한다.
- 여러분이 왜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릴 날을 고대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교회에서 발표한다.

특별한 증인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걸 믿기만 하면 지금은 그걸로 충분한가요?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확신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95쪽에서 발췌함.

“신앙을 키우십시오.
신앙을 선포하십시오!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을 느꼈어요!



이첸(6세), 대만

저는 자주 부모님께 “성신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쭙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아주 좋은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다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살배기 남동생이 뛰어놀다가 난로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의 머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동생은 피를 흘리며 울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엄마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도 계속 가슴이 별렁거렸고,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남동생을 축복해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자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기뻐하시며, 제가 느낀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바로 성신이 저에게 주신 위로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성신은 사람들끼리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평화로운 느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차례 성신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축복을 주실 때, 저는 눈을 감고 경건하도록 애썼습니다. 그때 저는 그 따스한 느낌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신을 더 쉽게 느끼려면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아이사의 축복

매켄지 반 앵겔렌호벤
실화에 근거함

“내 가정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으니”(어린이 노래책, 102쪽)

“**무**슨 언짢은 일 있니?” 교회에서
T집으로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사는 암스테르담의 거리에
흐르는 십자형 운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회 선생님은 가정에 신권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아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신권이
없으시니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아빠는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우리 집에도 신권이 있다.”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도울 수 있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이 우리 와드에
많이 계시잖아. 우리 가정 복음 교사이신
반 리우벤 형제님은 어때니?”

아이사는 반 리우벤 형제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이사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인 스트룹
와플(stroopwafel: 네덜란드식
와플-옴긴이)을 가지고 오셨고,
아이사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인 과학에
관해 이야기도 나눠 주십니다. 그러나
아이사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걱정될
때에는 아빠가 신권 축복을 주신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아이사는 아빠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도 신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어땠니?” 아빠가 엄마와
아이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사는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어린이는 12살이 되면 다음 해에 어느
학교에 갈지 결정하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아이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배가 꼬이는 것처럼 아파
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치락거리고 있을 때,
아이사는 초등회 공과 시간에 두려울
때에는 신권 축복을 부탁하라고 배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축복을 주실
수는 없으셔도, 아이사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사는 알았습니다.

아이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일하고 계셨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괜찮니?” 아빠께서 물으셨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서 너무 떨려요.”
아이사가 말했습니다. “반 리우벤
형제님께 전화해서 제게 축복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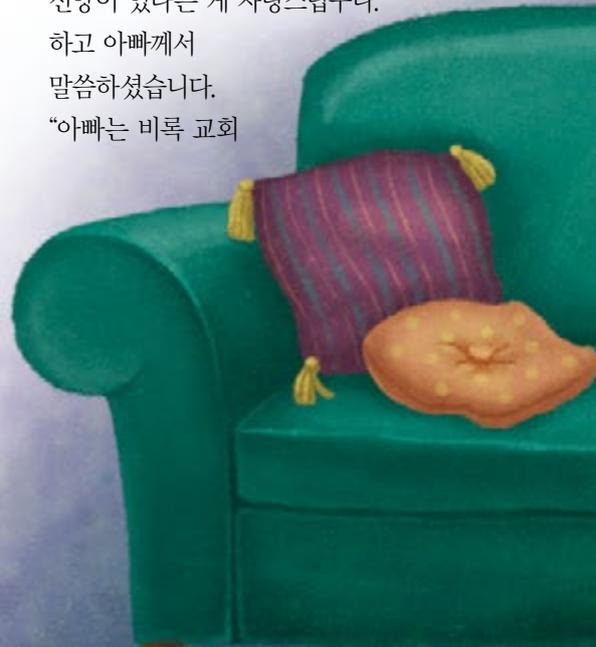
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화하마.”

곧 반 리우벤 형제님과 형제님의
아들인 자안이 와서 아이사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반 리우벤 형제님은 아이사가
떨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반 리우벤 형제님이 아이사에게 축복을
주는 동안, 아빠는 소파에 앉아 두 팔을
모으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 아이사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배도 아프지 않았고,
약간 졸리기까지 했습니다. 반 리우벤
형제님은 “내일 시험 잘 보렴.” 하고
인사를 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사,
넌 열심히 공부했어. 네가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이사를 침대에 눕히면서 “네게
신앙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하고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비록 교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매 시간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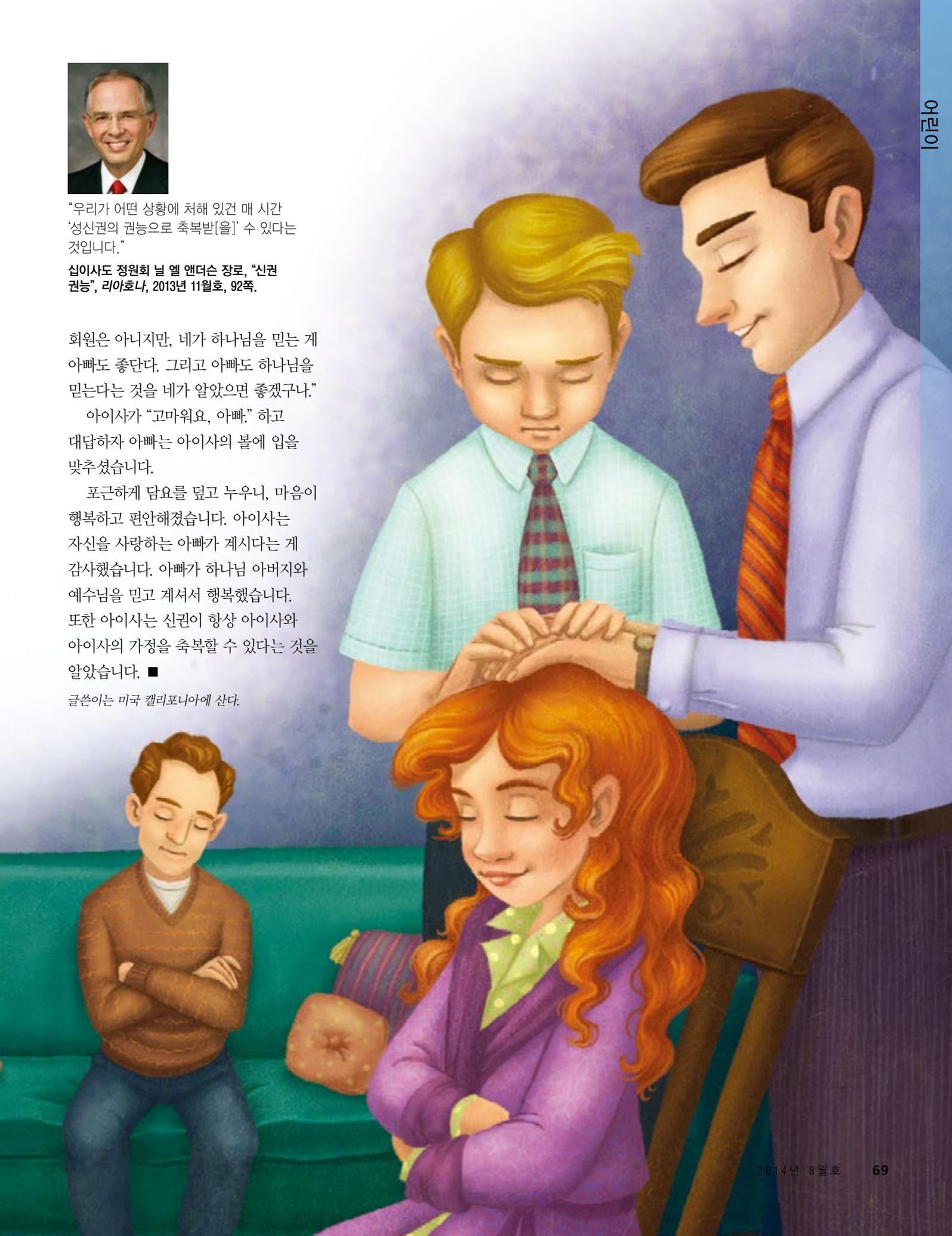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희 닐 엘 앤더슨 장로,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쪽.

회원은 아니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빠도 좋단다. 그리고 아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아이사가 “고마워요, 아빠.” 하고 대답하자 아빠는 아이사의 볼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포근하게 담요를 덮고 누우니,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가 계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아이사는 신권이 항상 아이사와 아이사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양 같은 사자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어린이 노래책, 2쪽)

저는 양 같은 사자 램버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는 만화로도 제작되어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새끼 사자인 램버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쪽 양 떼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램버트는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밤, 램버트와 양 떼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무섭게 울부짖는 늑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양으로 여기는 램버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늑대는 더 가까이 접근해 와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램버트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강렬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램버트는 양을 구하기 위해 늑대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램버트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램버트는 생각했습니다. ‘난 양이 아니야. 새끼 양도 아니지. 난 새끼 사자야! 늑대를 쫓아가 양을 구하면서, 램버트는 진실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영의 아들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사자처럼 나쁜 것들과 싸우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램버트처럼 강하게 될 수 있으며, 저는 그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



우리들 이야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유엔, 6세, 타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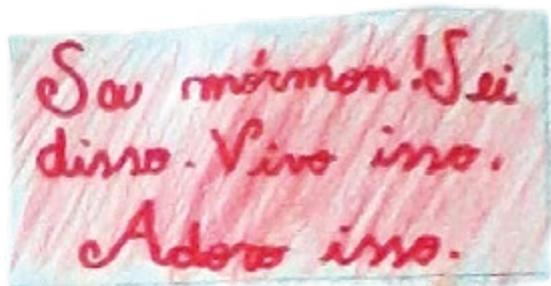
니파이후서 30장 12~15절에는 복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복천년이 되면, 구주를 만나고 동물들과 뛰어 놀고 싶습니다.

유로, 10세, 타이완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오는 축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교리와 성약 59:16 참조) 저는 동물들을 사랑합니다.

유렌, 8세, 타이완



저는 물론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물론답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해요, 로라 엔, 8세,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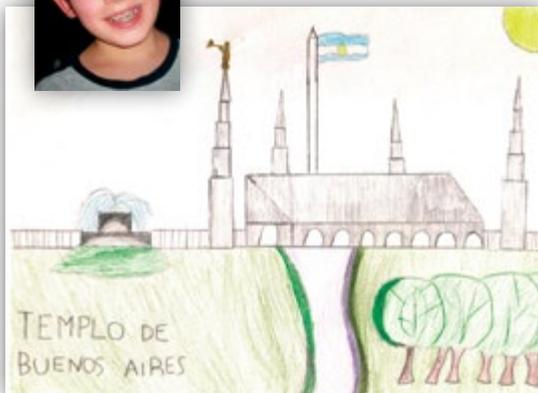


소년과 바다, 힐라맨 지, 11세, 멕시코(해군 장관이 주최한 미술 대회 수상자)



아빠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많은 방들을 구경했습니다. 성전 공개 모임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저도 성전에 들어가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을 사랑합니다.

구이도 알, 10세, 아르헨티나



*Mālō e
lelei!**

저는 통가에 사는
칼로니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해변에
가서 바다와 모래밭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춤과 운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세미나리 건물에 구원의
계획을 그릴 때, 저도 벽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과
함께 학교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빠는 고등학교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세미나리
교사이십니다. 저에게는
도로시 언니랑 빌슨 오빠도
있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우리 모두와 사촌들이 선교 사업을 가도록 돈을 마련하는 가족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우리는 치킨 케밥과 오타이(코코넛과 열대 과일을 갈아 만든 과일 음료-웁긴이)를 만들어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애미 제인 레빗과의 인터뷰에서

통가 왕국에 사는 칼로니를 만나 보세요. 통가 제도는 프렌들리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성탄절에 가족 소풍을 가 본 적이 있나요? 칼로니의 가족은 성탄절에 해변으로 소풍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반구는 12월이 여름철이어서, 성탄절에 소풍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10살인 칼로니는 즐거운 명절을 숙모, 삼촌, 사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

* 통가어로 “안녕, 친구들!”



저는 대학에 가고, 엄마처럼 세미나리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도 가도,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아름다운 낙원 같은 섬에서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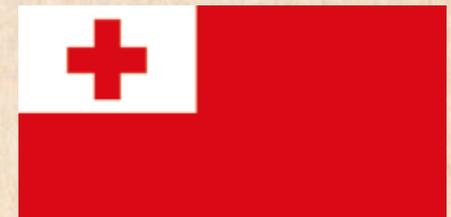


나 성전 보고 싶어



학교 가는 길에 저희 가족은 성전을 지나갑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평화로운 기분이 느껴집니다. 저도 빨리 자라서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은 1983년에 헌납되었습니다. 성전은 보수된 뒤 2007년에 다시 헌납되었습니다.



이제 떠나 보시죠!

칼로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방에 넣어 가고 싶나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 가족이 강화된다



제니퍼 매디

루카스는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 사람을 찾으려고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벤 형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누나는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편물을 보고 계셨고, 아빠는 독서 중이었습니다.

“다 재미없어 보여.” 루카스가 투덜거렸습니다.

책을 읽으시던 아빠가 루카스를 돌아보셨습니다. “무슨 뜻이니?”

“우린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아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아빠는 읽던 책을 덮으셨습니다. “네 말이 맞아.”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들을 모아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해야겠군.”

루카스는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몇 분 뒤에 루카스의 가족은 함께 둘러앉아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소피는 문자 메시지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싶어 했습니다. 벤 역시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친구 풀은 가족들이랑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가족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소피는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기가 싫었고, 벤도 발목을 다쳐서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 그건 네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얼 좋아하지?”

벤 형이 자기는 보드 게임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소피 누나는 책 읽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자동차 경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해 보자. 제일 먼저, 보드 게임을 하면 어떨까?”

곧이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피는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벤도 이제는 컴퓨터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날 즈음에는 가족들 모두 웃는 표정이었는데, 특히 루카스가 정말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노래

- “가족”(Children’s Songbook, 194;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별책 부록 친구들 F11쪽)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함께 재미있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어떤 활동을 하면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이번 달에 가족이 함께 새로운 한 가지 활동을 해 보자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즐거운 달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여기에 나온 활동을 하려면, 그림을 오려 내어 그 활동을 하고 싶은 날에 테이프나 풀로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획한 활동을 하려면, 빈칸도 남겨 두세요!



2014년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게임을 한다



산책을 한다



성전에 간다



함께 자전거를 탄다



수영하러 간다



가정의 밤을 한다



함께 노래를 부른다



운동을 한다



책을 읽는다

엘리의 친구들

제인 니커슨
실화에 근거함



엘리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월은 엘리와는 놀지 않으려 했어요.
“엘리랑 놀 거면, 너는 나랑 못 놀아.” 월이 제이크와 대니에게 말했어요.



엘리가 월에게 친절하게 부탁했지만 월은 “싫어. 저리 가 버려.” 하고 대답하며 돌아서지 뭐예요.



엘리는 술래잡기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 끼어 보려 했지만 아무도 엘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엘리는 학교에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새로 온 여학생인 에머는 엘리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엘리가 말을 건넸어요. “나랑 같이 놀래?”

“좋아.” 에머가 대답했어요. “재미있어 보인다.”



그러자 제이크와 대니도 부탁했어요. “우리도 같이 놀아도 돼?”
 “물론이지.” 엘리가 말했어요.



일은 쓸쓸해 보였어요.
 “일, 너도 이리와.” 엘리가 말했어요. “같이 놀자.” ■

장난감 놀이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찾아보세요. 그런 후에 그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각 세어 보세요.



두려움 대신 신앙으로

캐서린 벨슨

나의 제일 친한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 헤어졌어.” 나는 친구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데이트를 해 왔던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헤어져서 슬펐지만, 둘 다 우리의 결정이 옳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몇 주가 흐르면서,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사귄 사람도 찾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면 어찌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내가 유난을 떤 것은 아닐까?

나는 너무 외로워서, 다시 우리의 만남을 시작할 기회를 줄 것인지 그에게 물어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묘사한 대로 나는 “과거에 안주하려던 간절함이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더 컸다.”¹

헤어지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에 나는 구주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주께서 돌아가신 뒤 삼 일째 되는 날, 충실한 추종자들이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 옮겨져 있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사 두



만약 사귄 사람도 찾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면 어찌지?

명이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천사의 이 물음을 읽었을 때 갑자기 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지 않았나 하고 어리둥절해했을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일어나시리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경전이 나에게 친절한 꾸지람을 주는 것 같았다. 구주의 친구들처럼, 나도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안주하고 “하염없이 동경하는 것은”² 위안이 되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낳을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도 못한다. 지난 시간의 무덤을 돌아보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고, 구주께서 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삶을 창조해 주실 수 있음을 신뢰해야 했다.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는 자신을 보거나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면, 나는 그 구절들을 생각한다. 구주 덕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구주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되, 그곳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과거의] 찬란한 경험에서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³ 우리는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18쪽; speeches.byu.edu.
2. 제프리 알 홀런드,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18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18쪽.



어떠한 선택이 가족을 행복으로 이끌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가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조언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란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해 행복에 이를 한 가지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품이 어떠하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든, 행복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42쪽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주변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62쪽

결혼이 멋진 이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동반자와 결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양 같은 사자

70쪽

사자 램버트는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02109 88320

10988-320

9